



장전 브리핑 · 개장 전 필수 체크

## 호르무즈 역봉쇄·고유가 충격, 코스피 5800선 사수 후 반등 모색

### 글로벌 마감 지표

S&P500 6,816.89 (-0.11%)

나스닥 22,903 (+0.35%)

다우 47,917 (-0.56%)

필라만도체 8,889.83 (+2.31%)

WTI 104.24 (+0.00%)

금 4,740.90 (+0.00%)

비트코인 70,747 (-0.01%)

원/달러 1,487.01 (+0.93%)

달러인덱스 98.98 (-0.00%)

영국FTSE 10,566 (-0.32%)

독일DAX 23,576 (-0.96%)

## 🔥 핵심 이슈

### 1 미-이란 협상 결렬·호르무즈 역봉쇄

미국이 이란과의 1차 핵협상 결렬 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예고하며 지정학 리스크가 급격히 고조됐다. 중동발 불확실성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직결된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예고...국제유가 100달러 다시 넘어...](#) [美 호르무즈 역봉쇄 예고...국제유가, 다시 100달러 넘어\(종합\)...](#)

### 2 국제유가 100달러 재돌파

WTI가 100달러를 재차 상회하며 에너지 비용 상승 우려가 현실화됐다. 정유-에너지 섹터는 단기 수혜 가능성이 있으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계 전반의 비용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국제유가 다시 100달러대..코스피 하락·환율 상승...](#) [미국,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예고...국제유가 100달러 다시 넘어...](#)

### 3 원/달러 환율 1487원·1500원 재위협

미-이란 협상 결렬 충격으로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상승하며 1500원 재돌파 우려가 높아졌다. 고환율 장기화는 수출주 실적 방어에는 일부 긍정적이나, 외국인 자금 이탈과 물가 상승 압력을 동반한다.

[\[서한-마감\] 美-이란 종전 결렬에 상승...6.80원↑...](#) [달러-원, 런던장서 1,480원대 중후반 등락...상승폭 축소...](#)

### 4 코스피 5800선 턱걸이 마감

전일 코스피는 미-이란 협상 결렬에 50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나 개인 투자자의 7500억 원 순매수로 5808포인트에서 낙폭을 제한했다. 5800선이 단기 지지선으로 부각되며, 오늘 장에서 반등 시도 여부가 관건이다.

[\[마감시황\] 미-이란 협상 결렬에도 개인 '사자'...코스피, 5800선 사수·코.....](#) [코스피, 미국-이란 협상 결렬에도 5,800선 반등...](#)

### 5 필라델피아 반도체 +2.31% 급등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대비 2.31% 급등하며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투톱의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증권가는 저가 매수 기회로 평가한다.

[\[주간증시전망\] SK하이닉은 사고, 삼성은 팔고...외국인은 왜 삼성을 팔아.....](#) [전쟁보다 강한 AI 메모리... 증권가 "삼성전닉스 저가매수 기회"...](#)

### 6 광통신·방산·비료주 급등

전일 장 중 광통신 관련주와 방산주, 비료 관련주가 AI 인프라 수혜 기대 및 중동 긴장 고조로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다. 오늘도 지정학 리스크 지속 시 방산-에너지안보 테마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3일 특장주\] 광통신株, AI 인프라 수혜 기대에 '불기둥'...무더기 상한.....](#)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피·코스닥 '광통신·통신장비' 불기둥...줄.....](#)

### 7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

고유가와 미국의 관세 충격이 겹치며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가운데, 신현승 신임 총재는 물가 상승을 더 심각한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어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전망이다.

[\[위클리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동결...중동發 '성장 둔화-고.....](#) [\[기자의눈\] 불확실성 폭풍우 속 한은 키 잡는 신현승...위기극복 역할 막.....](#)

### 8 1분기 실적 시즌 개막 주목

대한항공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4조5151억 원)과 영업이익(5165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정학 불확실성 속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으로 수급이 집중될 수 있다.

[열어지는 코스피 '주말 효과'...실적 장세 오나...](#) [대한항공, 1분기 매출 4조5151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영업이익, 5165.....](#)

### 9 삼성전자 갤럭시S26 흥행·스마트폰 1위 탈환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 흥행을 발판으로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했다. 반도체 업황 우려 속에서도 완제품 부문의 긍정적 모멘텀이 삼성전자 주가에 일부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S26 흥행에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1위 탈환...](#)

### 오늘의 관전 포인트

오늘 장은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실행 여부가 최대 변수로, 실제 봉쇄 진행 시 유가 추가 급등과 함께 코스피 5800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반면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31% 급등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등 시도를 뒷받침할 재료로, 반도체 섹터가 지수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주목된다. 섹터별로는 방산·광통신·비료·에너지 관련 주의 지정학 테마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적 시즌 개막과 함께 항공·금융 등 이익 가시성이 높은 종목으로 선별적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재돌파 여부와 외국인 수급 방향이 오늘 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이며, 스태그플레이션 경계감이 높아진 만큼 경기 민감 소비재·화학 업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